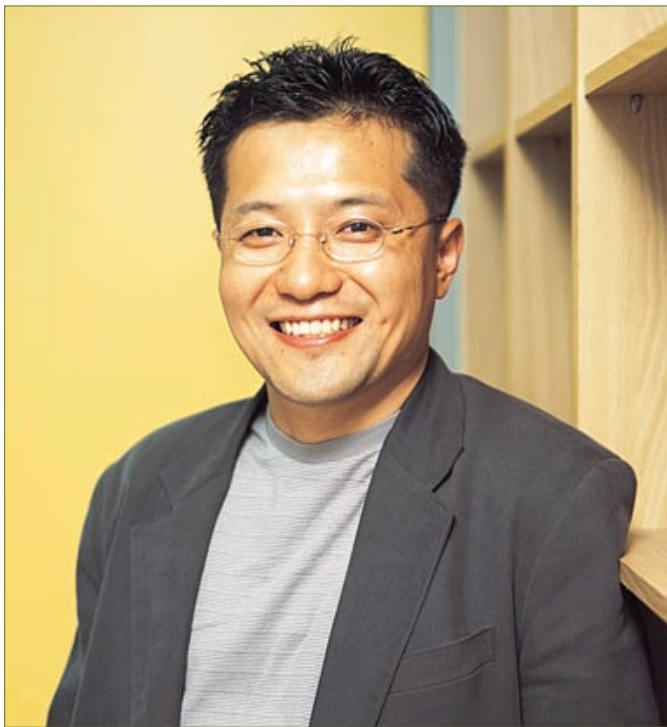




무임승차는 곤란 ... “협회에 힘 실어달라”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모바일게임 업계는 고속성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지배구조,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업체들, 망개방 문제, 위피(WIFI) 문제, 업체간 협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선장이 바뀌었다. 오성민 나스카 사장이 제4대 한국모바일게임 협회장으로 선임된 것.

오 회장은 모바일게임 업계에서는 ‘만형’으로 통한다. 85학번인 그는 모바일게임 업계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인데다 국내 웬만한 모바일게임 업체 사장들과의 사이도 돈독하다. 대부분의 모바일게임 업체 사장들과 친분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들과의 ‘소주 한잔 하는 자리도 주도한다.

고인이 된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형편의 나스카 사장으로 취임한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그에게선 인간미가 넘쳐난

다. 이런 점 때문에 협회 회장으로 선임되는데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고, 회원사도 이전 40여개에서 60여개사로 확충됐다.

“제작년 오스카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게 오히려 쉬웠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협회 역시 단순 인적자원의 개념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유들유들한 성품의 오 회장이지만 협회를 제대로 이끌겠다는 의지는 다부지다. 우선적인 현안은 이동통신사와의 관계정립. 이동통신사와 모바일게임 업체가 ‘적대관계’는 아니지만 ‘갑을관계’인 현실에서 각 업체들은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지만, 업체들 위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어찌하든 이동통신사에 의해 수익이 좌우된다는 패배의식에서 출발하면 곤란합니다.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도움을 줄 일은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협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 회장은 모바일게임 사장들간의 모임을 지속하는 한편 각 업체 담당자간에도 유대관계를 위해 모임을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간의 포럼도 기획하고 있고 이사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임의단체에 불과한 협회도 사단법인화할 예정이다. 주무부처를 정보통신부로 할지 문화관광부로 할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회원사의 의견수렴 결과 이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에 난립한 단체들의 통합을 내건 한국게임산업협회(가칭)로의 참여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바일게임 업체와의 매출규모에서 차이가 있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데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문제를 제외하고는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들러리 형식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